

IT 부터 물류까지... 서부지역 첨단산업 · 대외개방 새 허브로

섬서성 서안에서 열린 '제9회 실크로드국제박람회', 중경에서 개최된 '제7회 중국서부국제투자무역상담회', 사천성 성도에서 열린 '제20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 일련 3개의 국제행사가 서부지역에서 련이어 개최되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12개 성·구·시가 위치한 서부지역은 10여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 개혁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곳은 개방을 확대하고 특장·해상을 통한 국내외 련동, 동서간 쌍방향 상호 보완을 중심으로 한 전면 개방 패러다임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우리 나라 대외개방을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분야, 더 심층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5월 21일, '제9회 실크로드국제박람회' 및 '중국동서부협력투자무역상담회'를 찾은 관람객이 따위끼스탄 부스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신화넷

서부지역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해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서부지역은 예로부터 중요한 무역 허브였다.

"중경에 온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한 기업 책임자는 서부육해신통로를 통해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동남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물류 주기가 약 30일에서 18일 정도로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약

50% 줄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서부지역에서는 고속철차가 질주하고 도로망이 촘촘히 짜여있으며 항공 로선이 증가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달린다. 서부육해신통로는 전세계를 연결하고 인적 교류, 물류, 자금 이동, 정보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인텔(英特尔)이 '제4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서 성도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1조원 규

모 IT 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서막을 알렸다. '제20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신형 디스플레이, 저고도 경제 등 최첨단 령역의 새로운 성과들이 대거 쏟아져나오며 지역 산업 전환·업그레이드의 새로운 동력을 키웠다는 평가다.

이 밖에 감숙성, 녜화회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등지는 풍력·태양광 자원이 풍부하고 귀주성은 다양한 광

물자원이 대거 매장되었으며 신장위글자치구, 청해성, 저장자치구 등지는 독특한 인문·문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서부지역은 천혜의 자원과 산업 발전 환경이 맞물려 특색있는 우위 산업을 탄탄히 키우고 현지에 맞는 신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수년간 '서전동송(西电东送, 서부지역의 전력을 동부로 보내는 핵심 프로젝트)', '서기동수(西气东输, 서부지역의 가스를 소비지인 동부로 보내는 사업)', '동수서산(东数西算, 동부지역의 데이터를 서부지역에 가져와 처리)' 등 중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서부지역의 자원 우위를 발전 우위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발전 수요를 힘있게 뒷받침하면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분업·협력, 협동·동반 발전의 량호한 국면을 형성했다.

'제7회 중국서부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참가한 GLP그룹 수석 부사장(SVP) 정복(郑覆)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우리 회사의 대중국 신규 투자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로 물류 공급사슬, 인공지능(AI), 컴퓨팅 파워, 에너지 등 령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남자유무역항 가공후 부가가치 창출하면 '관세 면제'



5월 28일, 해구세관 소속 삼아세관 직원이 해남 소재 기업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신화넷

해남자유무역항의 관세정책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 및 내수용 가공제품 관세 면제 정책〉은 해남자유무역항의 핵심 정책중 하나다. 해당 정책 적용 대상은 해남자유무역항에서 가공하여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장려산업 종사 기업의 내수용 제품으로 수입 원료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부과한다.

정책에 따른 세수 혜택은 기존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내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관세 징수 정책보다 훨씬 크다. 특히 원료 수입 관세율이 높

은 제품일수록 혜택이 커 국내외 시장 활용과 해남 하이테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정책은 지난 2021년 7월 양포(洋浦)보세항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어 해남자유무역항내 기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및 13개 중점 산업단지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현재 해남자유무역항 전역에서 시험 적용중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이 실시된 이후 올해 4월까지 혜택이 적용된 화물의 가치는 83억원을 돌파했으며 면제된 관세는 약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해해협 신에너지차 해상운송 전용 로선 개통

5월 31일, 신에너지차 운반선 '록안통'(绿安通)호가 연태-대련 항로에 정식으로 투입되면서 발해해협 신에너지차 해상운송 전용 로선의 개통을 알렸다.

사진은 이날 '록안통'호가 연태항에 정박하여 신에너지차 적재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향향, 올해 지역총생산 2~3% 증가세 유지 전망



향향 도시 전경 / 신화넷

올해 향향특별행정구 지역총생산(GRDP) 성장 목표치가 2~3% 사이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향향특별행정구정부 재정사(司) 진무파(陈茂波) 사장은 2일 립법회에서 올 1분기 향향 실질 지역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하면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진무파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중 하나인 상품 수출이 전년 1분기보다 8.4% 확대되는 등 대외무역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객 확대, 국제운송 증가, 국제금융활동 활성화 등에 힘입어 서비스 수출 역시 6.6% 늘었다고 부연했다. 투자 지출도 2.8% 증가했다.

반면 민간 소비는 주민들의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을 받아 1.1% 감소했다.

최근 데이터에서도 경제 회복 모멘텀이 2분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4월 통계를 보면 상품 수출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향향 방문객도 13% 늘어난 385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로동절 연휴 기간에는 22% 급증한 110만명에 달했다.

진무파는 또 지난 5월 30일 기준 은행시스템의 총액자가 1,734억향향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의 448억향향달러보다 수배나 오른 수치다.

주식시장의 경우 5월 30일 기준 향생지수는 2만 3,290 포인트로 전년말 대비 16.1% 상승했다.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효재로 작용한 덕분에 분석된다.

서안, 1월—4월 국제화물량 102.4% 증가

고대 중국의 수도이자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섬서성 서안시가 항공 화물운송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올 1월—4월 서안의 국제화물량(주로 전자상거래 상품)은 1만 7,2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4% 증가했다.

서안 함양국제공항에 따르면 올해 서안이 유라시아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부다페스트행 화물 운송 항공편이 증편되고 프빌리쉬·밀라노·데브레첸·마드리드를 잇는 화

물 로선 4편이 신설됐다. 중앙아시아·중동·유럽과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지난 2월에는 함양국제공항의 제5터미널이 공식 개장했다. 총면적 70만 5,5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곳 터미널은 1기—3기 터미널의 총면적을 초과하는 '슈퍼터미널'로 통한다. 또한 115개의 항공기 주차공간이 추가되면서 도시 항공 물류 능력이 향상됐다.

이 밖에 항공 물류의 급성장이 특급 배송 및 다국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함양국제공항의 국제 특급 배송 물동량은 730만건 이상으로 국내 2위를 차지했다.

섬서성공(星空)크로스보더공급사슬관리회사 란의박(兰伟博) 사장은 "항주 등 연해도시와 비교할 때 서안은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행 항공 화물 운송에 있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또 서안을 거치면 운송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단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국산 경공업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图说
我们的
价值观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 民主 文明 和谐
自由 平等 公正 法治
爱国 敬业 诚信 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